

호남 불가론 놓고 與 주자 '영호남 전선' 형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 호남 불가론을 두고 영호남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호남 불가론으로 해석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반면 지역주의가 아니라, 확장성을 말한 것이라는 이 지사와 김두관 의원은 영남 출신이다.

이번 싸움의 발단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이낙연 캠프가 이 지사의 호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낙연 캠프는 지난 23일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

이재명·김두관 vs 이낙연·정세균 영호남 충돌 '영남' 김두관 '군필 원팀 보다 심한 악마의 편집' '호남' 정세균 '지역적 확장성, 민 노선과 안 맞아'

지역주의'라며 "백제라니. 지금이 삼국시대인가.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까지 하기 한 꼴보수 지역 이기주의 역사인식이며 정치력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사실상 일베와 같다"고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 후보가 적절치 못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저런 해명이 있었던 것 같지만 본인이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을 썼다. 거기에 바로 지역주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확장성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까지 정책 노선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호남불가론을 주장했다는 비판을 적극 반박하고 있

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는 '호남불가론'을 말한 바 없다. 도리어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극찬하며 '지역주의 조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딱 주고 뺏 맞은 격이다(김남준 부대변인 등)"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선의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논평을 썼다"며 이 전 대표에게 이 지사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30일 두 후보간 대화를 상기하면서 "원팀정신을 저버린 채 '이재명이 지역주의의 조장자'라는 가짜뉴스 퍼트리며 망국적 지역주의의 조장한 캠프 관계자를 문책하고 자중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평가를 맡긴다면 서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 녹취 파일도 첨부했다.

영남 출신으로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의원의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호남불가론'과 관련하여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에 이어 정세균 후보까지 나서길래 정말 심각한 줄 알았다. 그런데 앞뒤를 보니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게 분명하다"며 이 지사를 감쌌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에게,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역사가 한반도 없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 새로운 역사가 된다'며, 당선을 기원한 것을 호남불가론으로 둔갑시켰다"며 "이건 군필원팀 사진보다 더 심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때 아닌 적통 논쟁에 돌아간 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 내고 위로해야 마땅할 김경수 지사의 통화내용을 팔면서까지 이래야 하느냐"며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괴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 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거들떠보기는 하고 있느냐"는 이낙연 캠프 대변인의 논평을 이낙연·정세균 두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윤석열, 다음달 10일 '국힘 입당' 설왕설래 광복절 전 입당 추측도 나와

아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26일 야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윤 전 총장이 전날(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입당 의사를 보다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당에서는 '8월 10일'이라는 구체적인 입당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회동에 동석했던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8월10일이라는 날짜가 거론된 데에 "윤 전 총장은 '가령 내가 10일에 입당한다면 하루 전날 알려주겠다'며 예를 들었다"며 하나의 예시일 뿐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최고위 원님들께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럼 이틀 전, 8일에는 알려주겠다'고 답했다"며 화기에예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입당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안 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범 야권으로 출마할 거니깐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입당 시점을 이야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날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장소도 완전 오픈된 곳이 없다. 그럴(입당일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고 나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광복절(8월15일) 전 입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입당 시점을 놓고 윤 전 총장과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10일 입당설에 '한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다고 시계를 보면 해가 뜨는 게 예측 가능하다"며 "본인도 8월 중순을 넘기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광복절 이전에 들어가진 않겠나 그렇게 본다"며 "그게 우리가 통상 바라보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경선 전 입당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이라는 뉴시스의 질문에 그는 "정확히 얘기는 못 하지만 입당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서육 국방장관 "최근 논란 책임 통감 저의 거취 문제, 인사권자께서 판단"

"백신 접종 노력 부족했다"

서육 국방장관은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따른 경질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재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 중 "최근에 일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다"며 "저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는 "우리 군은 그동안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해 장병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 출항했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서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어색한 거리두기 하는 추미애-윤석열'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